

##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전영준

1. 머리말
2. 향파두리 토성 출토 명문와로 본 제주의 직촌
  - 1) 향파두리 출토 문자기와 분석
  - 2) 고려 복속기 제주의 직촌과 변화
3.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4. 맺음말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국문요약]

대몽항쟁기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배경으로 항전하였다. 여몽연합군의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 등으로 삼별초 진영은 와해되고 있었다. 제주도를 최종 방어지로 선택한 것 또한 여몽연합군의 공세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다.

삼별초의 제주 웅거와 관련하여 당시 제주 지역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그동안 연구는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이유로 고려의 지방정부로 편입되는 시기의 제주도에 대한 논의는 고려 태조 때거나 숙종 또는 의종 때로 나누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향파두리 토성 발굴 결과를 활용하여 제주의 지방 정부 편입 시기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발굴 현장에서 수습되는 명문와(銘文瓦)에는 당시 제주 지역의 촌락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려 정부와의 행정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기의 제주지역 촌명을 확인하는 작업은 삼별초가 향파두리에 입거하였던 이유를 규명할 수 있으면서도 삼별초가 향파두리 토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본 논문은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한 2014년 제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발표문 「고려 복속기 제주지역의 직촌 설치와 포구 운용」을 기초로 보태어 작성하였다.

## 1. 머리말

삼별초가 역사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무신정권의 종식 이후부터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몽항쟁의 전선에서 끈질기게 저항하였는데, 그 원인은 몽골군이 개경으로 환도한 고려 정부를 배후에서 조종하였기 때문이다. 江都時代라는 기간을 통하여 무신정권에서 불거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몽골과의 항쟁을 주도하게 된 배경에는 자주적인 저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삼별초에 대한 선행의 연구<sup>1)</sup>는 상당량 축적되었다. 삼별초의 성격을 비롯하여 활동상, 진도 및 제주 항쟁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되었다. 아울러 고려시대 제주에 관한 연구도 탐라세력의 형성과 전개, 행정 편제, 몽골과의 관계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2)</sup> 이렇게 삼별초 및 제주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논의로 회자되는 분야는 제주의 고려 중앙정부 편입 시기와 관련한 것으로 대체로 고려 태조 때부터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되었다는 주장<sup>3)</sup>과 숙종 10년과 의종 연간의 현령관 관련 기사를 근거로 하는

- 
- 1) 姜彰彦, 『濟州道の 環海長城 研究』, 『탐라문화』 11집, 탐라문화연구원, 1991; 尹龍麟,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尹龍麟, 『고려 삼별초의 제주 항쟁』, 『제주도연구』 11, 제주도연구회, 1994; 尹龍麟, 『고려 삼별초의 항쟁과 진도』, 『도서문화』 37, 도서문화연구원, 2011; 윤용혁, 『무인정권, 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해안, 2014; 고창석, 『元高麗紀事』 耽羅關係 기사의 검토(13세기 탐라와 원 元과의 관계), 『북한사림』 Vol.21 No.1, 경북사학회, 1998; 김일우·이정란, 『三別抄 對蒙抗爭의 주도층과 그 의미』, 『濟州島史研究』 11, 濟州島史研究會, 2002; 김윤곤,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의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배상현, 『三別抄의 南海 抗爭』, 『역사와 경계』 57, 부산경남사학회, 2005; 姜鳳龍,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 그 동아시아적 의의』, 『東洋史學研究』 115, 동양사학회, 2011.
  - 2) 강창화, 『항파두성 시굴조사』,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도, 1998; 고창석, 『삼별초와 제주도』,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도, 1998; 『유적의 위치와 환경』, 『제주항파두리성 외성』 I, 제주 고고학연구소, 2014; 김일우, 『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고려시대 특수 지방행정단위와 濟州道の 첫 행정단위 형태』, 한국대학박물관 협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10; 『고려시대 탐라사연구』, 신서원, 2010; 『고려후기 濟州 法華寺의 重創과 그 位相』, 『한국사연구』 119, 한국사연구회, 2002; 『고려후기 濟州 · 몽골의 만남과 제주 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고려시대 耽羅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海上活動』, 『한국사학보』 18, 고려사학회, 2004; 『고려시대 耽羅 지역의 牛馬飼育』, 『사학연구』 78, 한국사학회, 2006;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고려 · 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008;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서, 2008 등이 있다.
  - 3) 지방행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제주의 중앙정부 편입이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었다고 보는 시각으로 고려 숙종, 의종 년간에 지방 편입과는 다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지방 편입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문헌 자료를 근거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그 해석의 여하에 따라, 시대적 상황의 대입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문헌자료는 참고로 하되 최근 향파두리 토성의 내성지에서 수습된 마을명이 시문된 명문와를 분석하고, 이의 편년을 기준으로 삼아 제주의 중앙정부 편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마을명의 명문와 분석은 익히 알려진 문헌자료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마을의 형성을 통한 삼별초의 향파두리 입지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삼별초의 제주 항전은 적에 대응할 수 있는 토성의 수축에서 비롯하며 향파두리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대몽항쟁의 실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탐라왕국 시대부터 제주 사회가 지녀왔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촌락 구성이라는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그 촌락이 지닌 인문환경적 특징을 전략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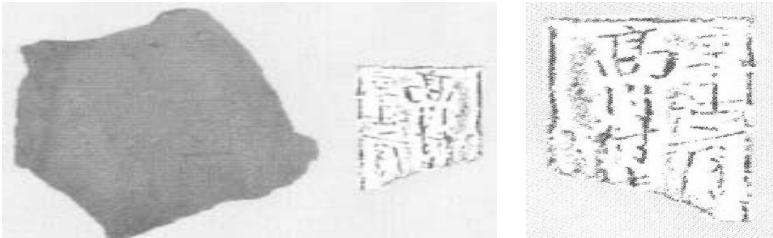
## 2. 향파두리 토성 출토 명문와로 본 제주의 직촌

### 1) 향파두리 출토 문자기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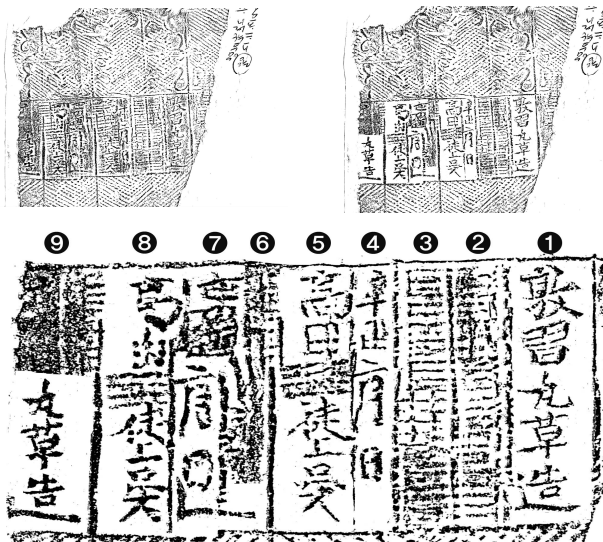
최근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 내·외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지난 2010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조사를 필두로 시작되었고, 2011년부터는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내성과 토성에 대한 시·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조사 자료는 이 분야의 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있어서 고려시대 삼별초와 대외관계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sup>4)</sup> 특히

4) 본고의 작성 단초인 명문와편에 대한 탁본은 (재)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제공한 것이다. 명문와에 대한 분석은 제작 간지와 타날된 문양을 통해 제작 편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이를 근거

2013년과 2014년의 조사에서 확인된 銘文瓦와 철갑옷 및 각종 생활유물의 수습에서 사료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습된 명문와는 지역명과 제작 간지가 분명한 것이어서 고려시대 향파두리 토성이 들어섰던 이 지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는 향파두리 내성지에서 수습한 명문와이다.



<그림 1> 2014년 향파두리 내성 발굴 '高內村 … 辛丑二月' 銘 와편(반전 후)



<그림 2> 2013년 향파두리 내성지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명문와 탁본  
(부분 확대)

로 하는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엔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기회를 제공해주신 강창화 소장께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린다.

〈그림 1〉은 2014년 향파두리 토성 내성지에서 수습한 ‘辛丑二月 … 高内村○’의 명문와편과 탁본이다. 이 명문와에는 제작 간지와 마을이름만 시문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림 2〉의 명문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글자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즉, 2013년에 수습된 와편에서 제작 간지와 마을명 다음의 글자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2014년 수습된 이 와편에서 명확하게 관독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1〉을 근거로 〈그림 2〉의 명문을 분석해 보겠다.

〈그림 2〉의 탁본을 오른쪽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면 모두 9행으로 나눌 수 있겠다. 우선 ①에서 확인되는 명문은 ‘敦眉瓦草造’거나 ‘○○瓦草造’의 내용으로 파악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짐작되는 ⑨에서도 앞의 두 글자는 타날 과정에서 뭉개진 것으로 생각되고, 나머지 ‘瓦草造’라는 명문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기와에 시문된 ‘瓦草’라는 표현은 고려전기에서 사용했던 기와에 대한 별칭으로 이러한 유형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발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sup>5)</sup>

고려시대 명문와에 대한 연구 중 특히 ‘瓦草’에 대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瓦’의 쓰기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로 ‘凡’과 ‘瓦’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瓦의 쓰기 방식으로만 보더라도,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와편의 경우에도 ‘瓦’가 분명하다. 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경우에도 ‘○草’라 하여 건물의 완공이나 지붕의 수습을 뜻한다<sup>6)</sup>고 보았다. 또한 이를 ‘凡草’로 관독하거나<sup>7)</sup> 그에 대한 해석을 ‘무릇 기초로 한다’<sup>8)</sup>고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의 언급에서와 같이 ‘瓦’와 ‘凡’이 유사하게 서사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무릇’이라고 관독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적인 발굴 사례를 들어 ‘瓦草’의 용례를 설명한 연구에서는 〈경

5) 서봉수 외, 『인천 계양산성 출토 기와와 문자자료에 대하여-4차 발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6, 한국목간학회, 2010, 109-132쪽; 고용규, 『장흥 대리 상방춘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321-347쪽; 최영희, 『강원지방 고려시대 평기와에 관한 연구』, 『문화사학』 21, 한국문화사학회, 2004, 651-692쪽; 이동주, 『경산 중산동 고려시대 건물지의 성격-문자기와의 분석을 통해서-』, 『고문화』 8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3, 91-112쪽.

6) 고용규, 앞의 글, 2007, 332쪽.

7) 서봉수 외, 앞의 글, 2010, 114쪽.

8) 상명대학교박물관, 『홍성 석성산성-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1998.

산 중산동 유적), <홍성 석성산성>, <보령 천방유적>, <익산 미륵사지>, <경주 창림사지>, <남한산성 행궁지>의 ‘瓦草’명 기와를 도식화하고 이러한 기와의 출토지가 전국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시 기와를 제작하던 공인들 사이에는 이미 ‘기와=瓦草’란 인식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9)</sup> 특히 기와의 어원인 ‘디새’가 덜[陶]와 새[草]의 합성어이고, 디새→지새→지에→지와→기와로 음운 변화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는 정치영의 의견<sup>10)</sup>을 인용하여 합성어인 기와의 용례를 밝히고 있다.<sup>11)</sup> 다만, ‘瓦草’의 용례를 ①지역명+瓦草이거나, ②제작간지+瓦草, ③사찰명+瓦草로 제한하여 설명한 것은 그동안 발굴된 기와에 국한한 것이겠지만, 향파두리 내성지에서 수습된 기와와의 용례는 ‘人名+瓦草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에서 지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瓦草造’ 앞의 두 글자는 이동주의 지적처럼 지역명이거나, 제작간지, 사찰명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이 인명인지, 다른 것을 지칭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기와를 소성할 때 재화를 투입한 사람이나 기와의 수요처를 시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앞의 <그림 2>에서 ⑤행과 ⑧행에 보이는 명문은 ‘高內○徒上口○’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내○’이라는 명문에 이어지는 ‘徒上’이라는 명문이다. <그림 2>의 ‘高內○’은 <그림 1>에서 ‘高內村’이라고 분명히 확인되기 때문이며, 아울러 ‘徒上’의 용례는 고려시대 이전의 탐라왕국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계층적 질서의 한 표현이었던 ‘都內’와 같은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이에 대한 실질적인 기사로는 “庚子에 耽羅縣의 徒上 仁勇·副尉·中連·珍直 등 12인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sup>13)</sup>는 내용에서도 ‘徒

9) 이동주, 앞의 글, 2013, 93-98쪽.

10) 鄭治永, 「高麗~朝鮮 前期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2, 중부고고학회, 2007.

11) 이동주, 위의 글, 2013, 98쪽 및 해당 각주 38) 참조.

12) 김일우, 「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한국사학회』 5, 고려사학회, 1998, 265쪽.

13) 『高麗史』 권18, 世家 18, “庚子, 耽羅縣徒上仁勇·副尉中連·珍直等十二人, 來獻方物.”

〈표 1〉 연결되는 문맥 구조

| ⑤                                                                                 | ④        | ③     | ② | ①     |
|-----------------------------------------------------------------------------------|----------|-------|---|-------|
|  | 高内村徒上口一文 | 辛丑二月日 |   | 敦眉瓦草造 |
|                                                                                   |          |       |   |       |

上'의 용례는 명확해진다. 따라서 ⑤와 ⑧에 보이는 명문은 '고내촌의 徒上(都内)'이 특정 목적으로 기와를 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아울러 〈표 1〉에서의 ①행 '○○瓦草造'의 '敦眉'는 기와를 소성하였던 匠人이거나 그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문자기와에 대한 앞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출토되는 명문 기와들의 편년이 대체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전기로 국한되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5)</sup> 여기에서 고려전기의 하한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무신정변이 있었던 시기인 1170년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한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瓦草' 명문와는 고려전기라는 편년을 지닌다고 하였을 때, 향파두리 내성지 수습 '○○瓦草造'의 명문와도 동일한 편년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성지(2차)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2014-12)』와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외성(外城) 시·발굴조사 간략보고서(2014-13)』에서

14) ⑤와 ⑧에 공통적으로 시문된 글자의 판독이 완전하지 않아 선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내촌의 특정 계급의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기와를 제작하였거나 제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5) 이동주, 앞의 글, 2013, 95쪽.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辛丑二月’이 과연 간략보고서의 지적처럼 1241년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sup>16)</sup>

보고서의 1241년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삼별초가 항파두리에 웅거하였던 시점인 1271년부터 1273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놓고 의도적으로 이 시기와 가까운 어느 시점인 신축년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항파두리 내성을 신축할 때 기와가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굴된 ‘瓦葺’명 기와들의 편년이 고려전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신축년 기와의 제작도 1170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거슬러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신축2월’은 1061년, 1121년, 1181년, 1241년, 1301년 중의 하나가 될 것인데, 1105년(숙종 10)에 제주가 고려의 지방정부로 편입된 시점과, 1153년(의종 7)에 縣令官으로 삼았다는 기사 및 1162년(의종 16)에 耽羅令으로 崔陟卿을 파견하였던 시기와 가까운 신축년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근거로는 제주가 고려의 지방 정부로 편입한 이후 고려의 독특한 기와문양의 유입과 제작 방식의 전수 및 생산된 기와의<sup>17)</sup> 사용 가능한 관청의 존재 여부를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축년 기와는 제주를 현령관으로 삼았다는 1153년과 1162년 이후인 1181년의 신축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1187년의 기록에서도 장윤문을 탐라현령으로 삼았다는 내용은 1162년 이후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내촌’이 제주현의 하부 행정조직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지역을 통제하였던 관청의 존재나 위격 있는 건물의 존재를 전제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은 탐라왕국 시기에 마

16) 고창석,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외성(外城) 시·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4-13)』,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4, 11, 26-27쪽.

17) 항파두리 내성지에서 수습되는 명문기와 및 각종 기와와 관련하여 (재)제주고고학연구소의 강창화 소장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 기와 생산이 가능하였는가에 대한 공동연구이며, 곧 연구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18) 『高麗史』 권20, 世家20, “甲申, 有人, 告耽羅叛, 王驚愕, 引兩府, 問處置方略, 卽遣閤門祗候獨孤忠·郎將池資深, 爲安撫使, 以式目錄事張允文, 爲大府注簿行耽羅縣令, 各賜綾絹七端, 因促上道, 詔前令尉, 皆加重罰, 旣而, 聞之, 無叛狀, 然詔令已出, 故允文上官, 而前令尉, 竟坐免.”

지막으로 유행하였던 고내리식 토기의 주된 생산지였다는 점과 북쪽 해안에 연계된 포구 운용을 직접 관할하였을 관청의 존재도 상정해 볼 수 있다.<sup>19)</sup> 이밖에 ②와 ③에서도 세로로 자획이 표현되어 있고 두 칸 내에서 바로 글자가 파악되지는 않지만 윤곽으로 확인할 만한 글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고려 복속기 제주의 직촌과 변화

『高麗史』 권57의 ‘耽羅縣’조를 비롯하여 각종 기록에 의하면, 제주는 신라와 백제에 조공한 뒤에 ‘耽羅’라 하였으며, 고려 초기까지는 濟州島를 주로 身尤 羅 · 耽羅 또는 身尤 羅國 · 耽羅國, 毛羅, 托羅, 耽牟羅國 · 耽牟羅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탐라에 대한 고려시대의 기록은 925년(태조 8)의 방물을 바쳤다는 기사<sup>20)</sup>와 938년(태조 21)에 耽羅國 태자 末老가 고려에 조회하매 성주, 왕자의 작위를 내려주었다는 기록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그러나 이 기록이 탐라가 고려의 지방 정부로 존재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며, 보다 명확하게 고려의 지방으로 편제되는 것은 1105년(숙종 10)에 毛羅를 고쳐 耽羅郡으로 삼았다는 기사와, 1153년(의종 7)에 縣令官으로 삼았다는 기사를 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전의 탐라는 고려의 번국으로 존재하면서 부정기적인 방물 헌상이 있었고, 팔관회에 참여하였다는 기사<sup>22)</sup>에서도 주변국으로의 위치를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고려 이전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삼국시대에는 한때 ‘백제’와 ‘신라’에, 고려시대에는 ‘고려’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자기와로는 ‘郭支村’, ‘資福’의 명문이 시문된 것도 수습하였는데, 시기상으로는 후대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겠다.

20) 『高麗史』 권1 世家 1 太祖 8年 11月, “十一月 己丑 耽羅貢方物.”

21) 『高麗史節要』 권1, 太祖神聖大王, 戊戌21年, “冬十二月, 耽羅國太子末老, 來朝, 賜星主王子爵.”

22) 『高麗史』 권6, 世家6, “庚子,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醕, 夕幸法王寺, 翼日大會, 又賜醕觀樂, 東西二京 · 東北兩路兵馬使 · 四都護 · 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 · 東西蕃 · 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高麗史』 권9, 世家9, “辛亥,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翼日大會, 大宋 · 黑水 · 耽羅 · 日本等諸國人, 各獻禮物名馬.”; 『高麗史』 권11, 世家 11, “辛未, 設八關會, 幸法王寺. 宋商 · 耽羅 · 東北蕃酋長等來獻土物.”

1105년(숙종 10) 고려는 탐라를 복속하여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제주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에서 생산되는 여러 물산에 대한 지배력 확장과 다양한 경로를 통한 물자의 확보에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들에서 확인되며, 대체로 지역 수탈이 전제되었다거나 또는 고려의 지방 통제력의 강화 일환의 하나였다고 이해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탐라국 시대를 마감하고 고려의 정치지배력 내에 편입된 제주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탐라국보다 큰 나라였던 고려의 지방 통치 또는 蕃國에 대한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 숙종 때의 기사로 보면 탐라를 고려의 지방행정구역 중의 하나로 편제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의종 때의 기사에는 당시 濟州島가 全羅道 羅州牧에 속한 11개의 주현 중의 하나인 탐라현이었으나, 1162년(毅宗 16) 耽羅令으로 崔陟卿을 파견하면서부터<sup>23)</sup>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서기(왕력)                  | 행정구역 명칭                 |
|-------------------------|-------------------------|
| 938년(태조 21)~1104년(숙종 9) | 島→國(울릉도→우산국, 탐라→탐라국)    |
| 1105년(숙종 10)            | 탐라군(속현의 성격)             |
| 1153년(의종 7)             | 탐라현(주현)                 |
| 1162년(의종 16)            | 현령관 최척경 파견(주현)          |
| 1211년(희종 7)             | 귀덕현 분할(속현 성격)           |
| 1216년(고종 3) 이전          | 縣과 郡의 성격 혼재             |
| 1220년(고종 7)             | 耽羅郡(『高麗史』五行志)           |
| 1223년(고종 10)            | 제주(邑號 변경)               |
| 1273년(원종 14)            | 원 직할령 편제(탐라총관부)         |
| 1295년(충렬왕 21)           | 제주목 승격(목사 파견) ※계수관으로 편성 |
| 1300년(충렬왕 26)           | 동서도현 분할                 |

23) 『高麗史』 권57 地理11.

숙종과 의종 때의 기록을 음미하면 당시 탐라는 몇 개의 屬縣과 村을 거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熙宗 7년(1211)에는 탐라현의 石淺村(돌덕마을의 한자 차용)을 歸德縣(돌덕촌의 한자차용)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촌명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항파두리 토성에서 산전되는 기와조각 중에서 ‘高內村…辛丑二月…’이라고 타날된 명문와편이나, 최영장군을 전하는 기록에서 ‘明月村’이라는 표현 및 2013년에 진행된 항파두리 발굴에서도 ‘歸日村’의 명문와가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당시 탐라에는 縣의 하부 조직인 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면 고려 초기에는 탐라국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村을 두었다가 나중에 일부의 촌을 屬縣으로 승격시켰을 것으로 보인다.<sup>24)</sup>

한편, 『고려사』 五行志에는 1220년(高宗 7)에 耽羅郡의 명칭이 보이는데, 이미 고종 3년 이전부터 郡과 縣의 명칭이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郡으로 승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223년(고종 10)에 ‘濟州’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이것은 중앙행정구역 체제에 완전히 편입된 ‘濟州’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郡縣制 체제상에서 탐라군이 濟州郡으로 바뀌지는 않았던 사실에서 郡에서 州로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다.<sup>25)</sup> 이것은 이원진의 『탐라지』에 표현한 “원종 때 별초를 평정하고 합하여 한 州로 삼았다(元宗時平別抄 合爲一州).”는 기록대로 ‘濟州’라는 지명 표기는 원종 때 본격화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후 1295년(忠烈王 21)에 탐라현<sup>26)</sup>을 濟州牧으로 고치고 목사를 두었는데,<sup>27)</sup> 이때부터 제주목이 된 것이다.<sup>28)</sup> 1300년(충렬왕 26)에는 제주목에 東·西道縣을 설치하였다. 이는 곧 제주목의 하부 구조로 2개의 현을 설치하

24) 이원진, 『耽羅志』 濟州牧, 建置沿革.

25) ‘濟州’는 ‘濟(큰 물을 건너다)’와 ‘州(중요한 고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큰 물 건너에 있는 중요한 고을’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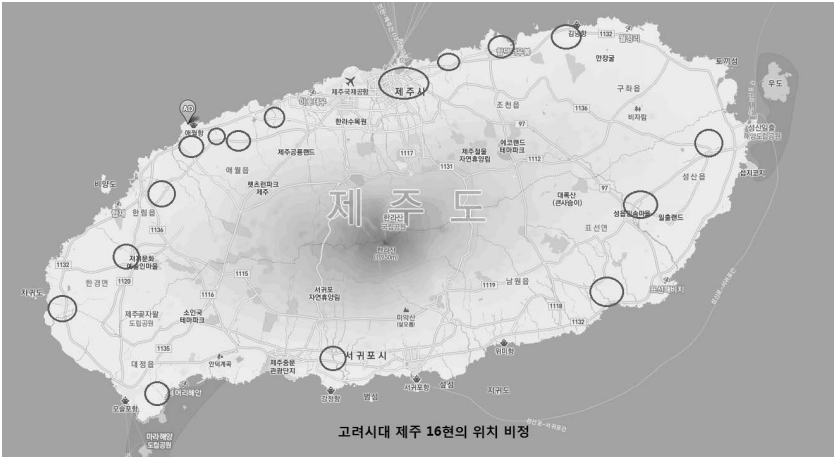
26)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4年.

27) 『高麗史』 권56 志10 地理1.

28) 고려 顯宗 때의 지방행정구역은 4都護 8牧 56州郡 28鎭 20縣을 두었다가, 그 후 5道 兩界 4都護 8牧 15府 129郡 335縣 29鎭의 제도가 확립되었다(『高麗史』 권56 志10 地理1). 아울러 『高麗史』 地理志에는 501개의 州縣과 372개의 屬縣이 있었다.

고 각각에는 縣村을 두었다.<sup>29)</sup> 당시의 현촌은 北面 大村縣을 본읍으로 삼아 동도현에는 新村縣·咸德縣·金寧縣·免山縣(兔山縣)·狐兒縣·洪爐縣 등의 7개 현을 소속시켰고, 서도현에는 歸日縣·高內縣·涯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大靜縣(山房縣)·遮歸縣·猊來縣 등의 9현을 소속시켜 모두 16현의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sup>30)</sup>

|     |        |                                          |
|-----|--------|------------------------------------------|
| 제주목 | 동도현(7) | 대촌현·신촌현·함덕현·김녕현·면산현(토산현)·호아현·홍로현         |
|     | 서도현(9) | 귀일현·고내현·애월현·곽지현·귀덕현·명월현·차귀현·대정현(산방현)·예래현 |



〈그림 3〉 1300년의 제주 16현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 濟州島의 지방행정구역은 고려의 지방관 제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곧 탐라군 또는 탐라현, 제주목이라 하고, 그 밑에 直村이나 縣村 등을 두었다. 촌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지방행정의 말단 조직으로 직촌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촌락을 이르고, 현촌은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인 縣 밑에 둬으로써 곧 주현이나 속현에 딸린 촌락을 이른다.<sup>31)</sup>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을 계승하여 확장시킨 조선 초기에는

29) 『東文選』 권101 星主高氏家傳.  
 30) 『太宗實錄』 권2 太宗 16년 5월 丁酉.

지방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현제를 정비하고 많은 任內를 군현의 직촌으로 편제하였다.

아울러 신촌현, 고내현, 광지현은 고대 탐라시대 전체를 통하여 제주도식 토기의 출현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파두리 토성과 내성지에서 잇달아 발굴되는 명문와와 관련하여 볼 때, 무문토기를 만들던 문화 단계의 후대 계승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 지역은 무문토기시대부터 탐라시대 후기까지 제작된 在地系 토기인 적갈색경질토기의 양산지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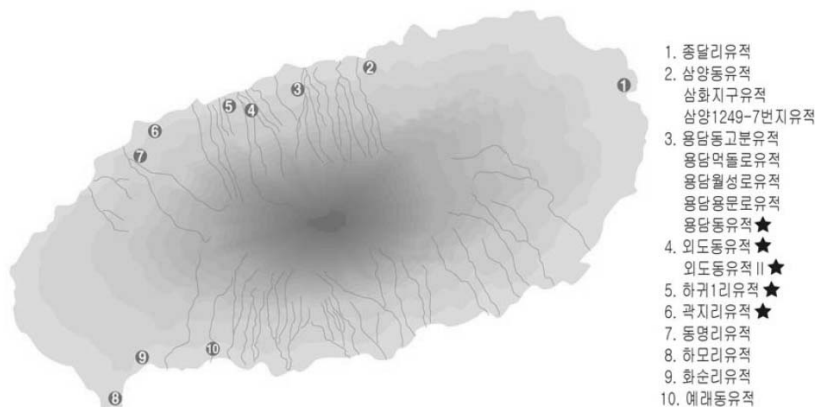
〈그림 4〉 좌로부터 삼양동식토기-광지리식토기-고내리식토기

적갈색경질토기는 크게 삼양동식 토기—광지리식 토기—고내리식 토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성형 기술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적갈색경질토기가 점차 균일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고내리식 토기는 제주지역 탐라 후기를 대표하는 토기양식이다. 그릇의 모양은 목 부분이 살짝 오므라든 원통모양으로 매우 단순하고, 꼭지가 달린 원반형 뚜껑이 많이 제작되었다. 고내리식 토기는 제주지역에서 이전까지 사용되어 오던 삼양동식토기, 광지리식토기 등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고내리식 토기들은 크기만 다를 뿐 그 모양은 원통모양으로 거의 획일화되었다. 재료가 되는 흙도 곱게 정선되었으며, 그릇의 두께도 상당히 얇고 균일해졌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반적으로 토기 제작 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1)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에는 행정관이 파견되는 州縣과 지방관이 없는 屬縣이 있었다.

같은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도기류가 사용되고 있었음에 비해, 제주에서는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 전통을 유지한 고내리식 토기가 사용되고 있어 고립된 섬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토기는 결국 기원후 10세기경까지 일반적인 주민 집단의 주요 토기로 사용되어 오다가 고려시대 도기가 제작되면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32)</sup>

이와 같은 토기의 사용 연대와 탐라국시대의 우물 유적의 집중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고려시기 탐라지역에 대한 현촌 및 직촌의 설치와 운영은 상당한 연관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래의 고고학적 조사에서도 그 성격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33)</sup>



〈그림 5〉 탐라시대 우물유적 분포도(이용석, 2014, 15쪽)

한편, 탐라시대의 마을을 중심으로 할 때, 앞에서 언급한 직촌 및 현촌의 배치는 대체로 제주도와 물길로 연결되는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탐라의 주요 배길은

32)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실 소장유물검색, [http://jeju.museum.go.kr/\\_prog/collection/index](http://jeju.museum.go.kr/_prog/collection/index).

33) 이용석, 「탐라시대 제주지역 우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에서는 탐라시대의 마을 유적 중 우물 25기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남, 나주, 강진, 개령에 직접 닿을 수 있었다는 것을 유의한다면,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형성과 행정구역의 성립을 재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고려시대 제주의 포구는 한라산 북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현재의 제주시를 중심으로 볼 때 동쪽으로 건입포-별도포(화북포)-관포(조천포)-함덕포의 포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도근포(조공포)-군향포-애월포-명월포-모슬포로 이어지는 해안선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포구 중에서도 도근포(조공포)-군향포-애월포-명월포와 동쪽지역의 관포(조천포)-함덕포를 포함하는 6개의 포구는 서·남해안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과 조운로로 활용되는 해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후일 삼별초가 향파두리 토성을 수축한 이후 이들 지역을 관측과 방어에 적극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 3.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제주 향파두리 성은 제주도 유일의 토성으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상귀리 일대에 위치한다. 제주시 하귀리 해안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해발 140m~200m의 구릉상에 자리하고 있다. 이 구릉은 해발 120m에서 급격하게 남쪽으로 경사져 올라가다가 해발 140m부터 200m까지 완만한 경사면을 유지하고 있다. 토성 서쪽으로는 소왕천, 동쪽으로는 고성천의 두 하천이 급경사면을 형성함으로써 자연적 垓字 역할을 하는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다.<sup>35)</sup> 그리고 성 자체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함으로써 북쪽 해안을 관측하기에 좋은 위치 조건을 갖고 있어서 여몽연합군의 이동이나 해안선을 관측하는데 이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해안으로부터 직접 닿는 곳에 위치한 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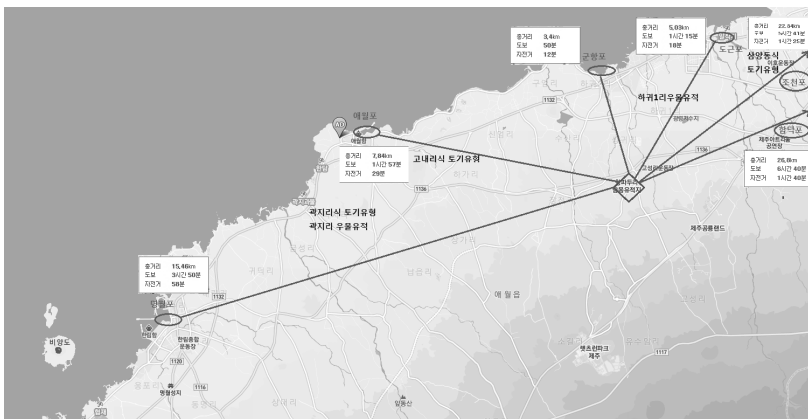
34) 삼별초의 제주 웅거와 관련하여 볼 때, 향파두리 토성 수축에 대한 의미를 당시 제주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성주와 왕자 등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였다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삼별초군이 무장 세력이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탐라지배세력만을 인정하려고 한 논지로 생각된다.

35)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성지(2차)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2014-12)』, 11쪽.



토성은 급격한 경사면을 취함으로써 자연적인 방어벽을 유지함과 동시에 성의 출입시설을 토성의 남쪽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해안에서부터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거리를 돌아야 하는 거리감도 갖고 있다.

항파두리성이 지형적 특징은 전투요새로서의 입지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주변에 분포하는 마을로부터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받기에 적당한 위치라는 특징을 지녔다. 이것은 제주의 북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 탐라왕국 시기부터 우물유적과 겹친다는 점, 고대로부터 사용하여 왔던 탐라식 토기 생산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전투에 필요한 물자 및 인적 자원의 보급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대춘(지금의 제주시)을 중심으로 형성된 읍성이 존재가 보이지만, 북쪽 해안으로 치우쳐 있고, 읍성과 바다가 연결되는 하천이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여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파두리성의 입지적 특징은 여러 면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시의 내륙과 연결되는 관포를 비롯한 항파두리성 관할하의 포구 운용도 원활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은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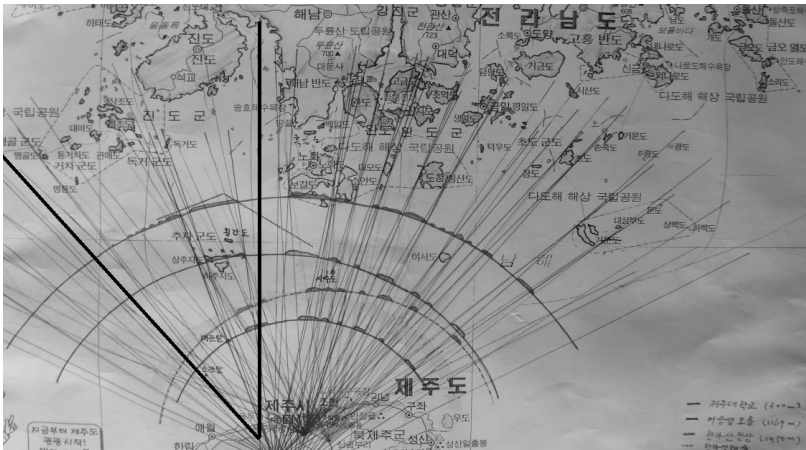


〈그림 6〉 항파두리 기점에서 운용되었던 북쪽 해안의 6개 포구

항파두리성에서부터 도근포(조공포)까지는 5.03km이고, 군향포까지는 3.4km이며 애월포까지가 7.8km, 명월포까지가 15.5km임을 감안한다면, 바

다로부터의 공세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위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항파두리성에서 관측되는 군항포 근처에는 바곶지오름(후일 파곶봉)이 낮게 앞드려 있어 이에 대한 관측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함께 갖고 있다.

〈그림 6〉에서와 같이 항파두리성의 북쪽은 한반도와 연결되는 바다로 이곳에서 관측되는 북쪽 바다는 맑은 날 남해안 지역의 섬은 물론 제주 해안으로 건너오는 배들을 추적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삼별초에 소속된 수군은 물론 항파두리의 병사들도 방어에 필요한 시간과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항파두리성에서 관측 가능한 북쪽 해안의 도서(검은 실선)\*\*\*

〈그림 7〉은 항파두리에서 관측 가능한 남해안 지역의 도서이다. 검은 실선의 사이에서 관측 가능한 도서들은 대체로 진도 해안에까지 관측이 되기 때문에 여몽연합군의 이동 또한 항파두리성에서 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해발 고도에 따라 보이는 섬의 크기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탐라읍성에서 관측되는 범위보다는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sup>36)</sup>

36) 검은 실선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소관탈섬은 물론 대관탈섬, 추자군도, 관매도, 하조도 진도에 이르기까지 물길 상에 놓인 섬이 관측되는 것은 명약관화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상에 대한 긴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던 것은 삼별초의 진도 정 부시절부터 축적된 관군과의 전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료에서 확인 되는 삼별초 소속 수군의 활약을 보더라도 전투 및 병참에 대한 정보력의 확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삼별초의 활동에서 두드 러지는 것은 출륙한도 결정이 난 이후에 진도와 제주를 거점으로 하는 대몽 항쟁을 들 수 있다. 江都를 배경으로 하였던 무신정권의 몰락 이후 고려 정 부는 개경 환도를 결정하고, 이에 반기를 든 삼별초군이 진도로 남하하여 진 도 정부를 세우면서 새로운 국면을 전개해갔다.

6월에 장군 裴仲孫, 야별초 지유 盧永僖 등이 난을 일으키고 … 承化候 溫을 협박하여 왕을 삼고, 관부를 설치하고 대장군 유존혁, 상서 좌중 이신손을 좌우승선 으로 삼았다. … 강화에서 지키던 군사가 많이 도망하여 육지로 나가니, 적이 능히 지키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배를 모아公私의 재물과 남의 자녀를 모두 싣고 남쪽 으로 내려가는데, 仇浦로부터 缸破江<sup>37)</sup>까지 뱃머리와 꼬리가 서로 접하여 무려 1천여 척이나 되었다.<sup>38)</sup>

이때부터 삼별초는 남해와 서해를 아우르는 漕運路 중심의 군사력을 강화 하였고, 몽골의 일본 침공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강조하여 1271년(원종 12) 일본에 소위 高麗牒狀을 보내는 등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갔다.<sup>39)</sup> 특히 진도와 남해를 중심으로 확대된 제해권의 장악은 삼별초의 주력군이 수 군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江都時代부터 수군에 대한 군사력 집중과 상당 부분 연관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천도를 결정할 당시의 강화도 에 대한 입지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운로의 확보를 통한 收稅가 가능

\*\*\*본문에 인용된 〈그림 7〉은 본 대학 철학과와 윤용택교수가 제공한 것이다.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정교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의 제공에 감사드린다.

37) 강화도 근처의 지명으로 보이는데, 강화천도 당시 개성의 지명을 강화도에서 사용하였던 사례로 본다면 제주의 항파두리 지명도 강화도의 지명을 차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

38) 『高麗史節要』 권18, 元宗, 경오 11년 6월.

39) 김윤근,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의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71-72쪽.

하다는 지리적 이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sup>40)</sup> 이와 함께 진도로 남하할 때 합류한 유준혁의 수군력도 이미 남해안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고 본다면, 삼별초가 남하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대상지를 모색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sup>41)</sup> 때문에 삼별초가 보유한 수군력은 상당한 수준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진도로 남하하기 이전의 대몽항쟁 과정에서 확인되는 몇몇 사례로도 확인된다.

- 金州(경남 김해)에 성을 쌓아 왜구를 방비하였다.<sup>42)</sup>
- 甲串江에서 수전을 연습하였다.<sup>43)</sup>
- 몽골병이 여러 섬을 치기 피하르로 장군 李廣과 宋君悲를 보내어 주사 3백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막게 하였다.<sup>44)</sup>
- 충주도 순문사 韓就가 牙州 바다 섬에서 배 9척을 가지고 몽골병을 치려고 하였다. 적이 도리어 반격하자 모두 죽었다.<sup>45)</sup>
- 장군 李旻을 보내어 水軍 2백여 명을 거느리고 몽골병을 남도에서 막게 하였다. 천이 溫水縣에서 싸워 수십 급을 베고, 사로잡혔던 남녀 1백여 명을 빼앗았다.<sup>46)</sup>
- 몽골 군사 60명이 艾島를 침략하니 별초가 모두 잡아서 베었다.<sup>47)</sup>
- 몽골병이 昌麟島를 침공하자 웅진 현령 李壽松이 별초를 거느리고 쳐서 물리쳤다.<sup>48)</sup>

40) 전영준, 「고려 강도시대 사원의 기능과 역할」,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133-134쪽.  
 41) 이와 관련하여 삼별초의 제주 입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제주도를 점령하였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진도 항쟁 과정에서 배후 거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42) 『高麗史節要』 권17, 신해 38년(1251) 11월.

43) 『高麗史節要』 권17, 계축 40년(1253) 8월.

44) 『高麗史節要』 권17, 병진 43년(1256) 정월.

45) 『高麗史節要』 권17, 병진 43년(1256) 4월.

46) 『高麗史節要』 권17, 병진 43년(1256) 6월.

47) 『高麗史節要』 권17, 병진 43년(1256) 10월.

48) 『高麗史節要』 권17, 정사 44년(1257) 9월.

삼별초의 수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이외에도 많지만 조운로를 거점으로 하여 해상제해권을 장악해가는 사실은 그들이 일정 규모의 정예 수군을 보유하고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삼별초의 제해권 확대는 서남해 연안의 조창을 장악하고 貢賦 수송을 차단함으로써 개경 정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해상교통로 차단 전술이었다. 이를 통하여 삼별초는 연해의 주요 포구를 관할하고 뱃길의 주요 요충지를 기지로 삼아 여몽연합군의 기지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려는 전략이었다.<sup>49)</sup>

한편, 진도 항쟁이 와해된 이후 제주로 남하한 삼별초는 제주를 거점으로 지속적인 제해권 장악에 노력하였다. 1272년(원종 13)의 기록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 3월에 삼별초의 나머지 무리들이 會寧郡에 침입하여 漕船 4척을 약탈하였다.
- 5월에 삼별초가 大浦에 침입하여 와서 漕船 13척을 나포하였다.
- 6월에 전라도 지휘사가 삼별초의 적선 6척이 安行梁을 지나 올라간다고 보고 하니 경성이 흥흥하여 두려워하였다.
- 장군 羅裕를 보내어 장차 군사 1천 5백 5십여 명을 모집하여 삼별초를 전라도에서 토벌하려 하였다. 이 때 적이 이미 탐라로 들어가서 내외 성을 쌓고, 수비가 험하고 굳건함을 믿으며 날로 더욱 창궐하여 항상 나와서 노략질하니 연해 지방이 소란하였다.

위 기록 중 6월에 삼별초가 조운로를 따라 이동하는 내용에서는 이미 개경 정부가 그 수군력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삼별초의 제주 입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서남해안 공략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운선을 직접 공략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군수 확보를 위한 원거리 운행이라는 점과 함께 여몽연합군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9) 배상현, 『三別抄의 南海 抗爭』, 『역사와 경계』 57, 부산경남사학회, 2005, 108-117쪽.

삼별초가 거점으로 삼았던 진도 용장산성이 1271년(원종 12) 5월에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자, 金通精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제주로 들어와 전선을 구축하였다.<sup>50)</sup> 그러나 이보다 앞서 삼별초는 1270년(원종 11) 11월 3일에 제주도를 함락하여<sup>51)</sup> 조천포에 웅거하고 있었다. 이후 삼별초는 항과 두리성과 애월목성을 축조하고 연이어 제주 연안의 환해장성을 수축하여 여몽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특히 환해장성은 삼별초가 1273년(원종 14)에 패전한 이후, 1854년(철종 5)까지 계속하여 修・増築되었다. 환해장성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여몽연합군에 반기를 든 삼별초군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해안 상륙을 저지하고자 축성된 沿海 石城이라는 점이다. 강화도 연안에 쌓았던 방어기능용의 성과 그 특징을 같이 하지만, 축성 주체가 삼별초 이전의 고려 관군이었던 점에서 치밀한 구조를 겸비한 성이라기보다는 남하하는 삼별초군을 1차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성벽이었음은 분명하다.<sup>52)</sup>

제주도에 수축된 환해장성에 대한 내용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되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大東地志』 등의 史書에는 총연장이 300여 리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 古長城: 바닷가에 따라 둘러쌓았는데 둘레가 3백여 리이다. 고려 元宗 때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진도에 웅거하니, 왕이 侍郎 高汝霖의 무리를 탐라에 보내어 군사 1천을 거느리고 방비하고, 인하여 長城을 쌓았다.<sup>53)</sup>

● 古長城: 바다에 연하여 동그렇게 쌓였으며 길이는 모두 3백여 리이다. 삼별초의 반란군이 근거지로 삼았으며 왕이 파견한 侍郎 高汝霖 등이 진도에서 이곳

50) 『高麗史節要』 권18, 경오 11년 11월.

51) 『高麗史』 권26 『세가』26, 원종 11년 11월 기해조, “十一月 己亥 賊陷濟州”

52) 姜彰彦, 『濟州道の 環海長城 研究』, 『탐라문화』 11, 탐라문화연구소, 1991, 122-134쪽. 한편 환해장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로는 高昌錫・李清圭・高光敏・梁鎮健・尹致富・姜彰彦이 공동으로 조사한 『옛 濟州關門인 禾北浦口 일대 學術調査』, 『탐라문화』 8, 탐라문화연구소, 1989, 181-306쪽이 있다.

53)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蹟條.

으로 와서 탐라의 반란군 1천여 명에<sup>54)</sup> 대비하여 긴 성을 쌓았다. ○ 제주는 동서가 2백 리이고 남북이 1백 20리이다. 섬은 모두 석벽으로 둘러싸였으며 바다에는 뾰족한 바위들이 깔려 있어 배가 정박할 수 없다. 근래에 오직 於川浦 입구에 石堡를 설치하여 방어에 대비하였다.<sup>55)</sup>

그리고 이 기록을 근거로 삼별초의 대몽항쟁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장성의 총연장에 대한 수축 가능 여부를 인력 동원의 문제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sup>56)</sup> 그러나 삼별초의 제주 입거 기간이 짧고 여몽연합군의 공세가 압박한 상황에서 기록에서와 같이 300여 리에 이르는 장성을 축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최초의 축성은 고려 정부군이었고, 이어 삼별초군이 보완과 증축을 목적으로 삼별초의 거점지인 향파두리성을 배후로 하는 지역과 조천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한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삼별초군이 고려 관군을 공격할 때 명월포에 상륙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향파두리성을 외곽에서 호위하는 지역과 이전 시기부터 제주목의 주요 교통 요지였던 화북포와 조천포 정도로 제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57)</sup>

또한 이것은 환해장성이 삼별초의 항복 이후에 왜구의 방비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이며, 특히 성산이나 온평 등지의 장성은 위치상 왜구의 주요 상륙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sup>58)</sup>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1270년(원종 11) 11월에 제주 지역을 점령한 삼별초 군사들은 1273년(원종 14) 5월 패전할 때까지 18개월 동안 향파두리성을 축조하고 포구와

54) 尹龍麟은 삼별초의 제주 항쟁이 진도 항쟁에 비해 군사력 규모가 약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단서가 아닐까 생각된다(『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연구』, 일지사, 2000, 3장 II절, 260-261쪽).

55) 『大東地志』 권12, 「濟州」古長城條.

56) 姜彰彦, 「濟州道の 環海長城 研究」, 『탐라문화』 11집, 탐라문화연구소, 1991.

5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古蹟條에는 涯月木城의 축성과 관련한 기록은 삼별초의 제주 입거 후 별도의 방어시설로 수축하였던 일이며, 삼별초군이 상륙한 명월포 해안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58) 환해장성은 어느 한 곳의 특별한 명칭이 아니라 제주 지역 전역에 분포하는데, 애월읍, 한림읍, 대정읍,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등지에서 조사·확인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해안방어유적으로는 3城 9鎭 25烽臺 38煙臺가 있으며, 대부분 해안을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도로, 환해장성을 정비했을 것으로 보인다.<sup>59)</sup>

삼별초의 제주 입거 방식은 해안의 중요 포구 6곳에 대한 황해장성을 수축하고, 애월포를 중심으로 목성을 추가로 설치한 후 항파두리 토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측 및 방어용 요새를 구축함으로써 여몽연합군의 공세를 전략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새 구축의 배경에는 당시 고려에 복속된 제주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는 방어기지의 구축과 지속적인 병참의 보급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 4. 맺음말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파두리 토성 내·외성지에 대한 발굴에서 축적되는 자료들은 삼별초의 제주 입거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특히 춘락명이 직접 시문되어 있는 명문화들은 제작간기와 관계없이 제주지역의 행정적 특징을 짚어낼 수 있는 1차 사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국에서 발견되는 여러 기와들 중 ‘瓦草’명의 기와는 제작 편년이 고려 전기라는 절대 연대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명이나, 제작간지 및 사찰명이 포함되는 문자기와의와는 다른 유형의 문자기과라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와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근 토성에서 발굴된 기와를 통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사실 중에는 제주의 고려 정부로 편입되는 시점이 숙종 10년과 의종 연간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려사』의 여러 기록들 중 팔관회 관련 기사나 토산물 헌상의 기사 등은 탐라가 고려의 주변국으로서 위치했었음을 반증하는 기사로 파악되며, 문자

59) 고창석,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발굴조사 중간보고 및 자문검토 회의자료』,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8-17쪽.



기와의 분석에서도 고려의 지방정부로 편입된 이후의 고려기와 제작술이 전래되었을 가능성과 이를 운용하였던 관리 및 관청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중앙정부 편입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아울러 향파두리 토성을 구축한 삼별초의 전략 또한 병참과 물자의 보급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함과 동시에 북쪽 해상을 관측할 수 있는 입지 선택 등은 강화-진도-제주로 이어지는 대몽항쟁의 맥락이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삼별초, 향파두리 토성, 명문기와, 고내촌(高內村), 탐라군(耽羅郡)

##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耽羅志』, 『東文選』, 『太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 2. 저서 및 논문

姜鳳龍,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 -그 동아시아적 의의」, 『東洋史學研究』 115, 동양사학회, 2011.

姜彰彦, 『濟州道の 環海長城 研究』, 『탐라문화』 11집, 탐라문화연구원, 1991.

강창화, 「향파두성 시굴조사」, 『제주향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도, 1998.

고창석, 「『元高麗紀事』 耽羅關係 기사의 검토(13세기 탐라와 원 元과의 관계)」, 『복현사림』 21-1, 경북사학회, 1998.

\_\_\_\_\_, 「삼별초와 제주도」, 『제주향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도, 1998.

\_\_\_\_\_,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발굴조사 중간보고 및 자문검토 회의자료」,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_\_\_\_\_, 「유적의 위치와 환경」, 『제주향파두리성 외성』 I, 제주고고학연구소, 2014.

김윤곤,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외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 김일우, 「고려시대 耽羅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海上活動」, 『한국사학보』 18, 고려사학회, 2004.
- \_\_\_\_\_, 「고려시대 耽羅 지역의 牛馬飼育」, 『사학연구』 78, 한국사학회, 2006.
- \_\_\_\_\_, 「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 \_\_\_\_\_, 「고려시대 특수 지방행정단위와 濟州道の 첫 행정단위 형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10.
- \_\_\_\_\_,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 \_\_\_\_\_, 「고려후기 濟州 法華寺의 重創과 그 位相」, 『한국사연구』 119, 한국사연구회, 2002.
- \_\_\_\_\_, 「고려후기 濟州 ·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 \_\_\_\_\_, 「고려 · 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008.
- \_\_\_\_\_, 『고려시대 탐라사연구』, 신서원, 2010.
- 김일우 · 이정란, 「三別抄 對蒙抗爭의 주도층과 그 의미」, 『濟州島史研究』 11, 濟州島史研究會, 2002.
- 배상현, 「三別抄의 南海 抗爭」, 『역사와 경계』 57, 부산경남사학회, 2005.
- 尹龍燦, 「고려 삼별초의 제주 항전」, 『제주도연구』 11, 제주도연구회, 1994.
- \_\_\_\_\_, 「고려 삼별초의 항전과 진도」, 『도서문화』 37, 도서문화연구원, 2011.
- \_\_\_\_\_,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 \_\_\_\_\_, 『무인정권, 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해안, 2014.
- 이용석, 「탐라시대 제주지역 우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 내성지(2차)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2014-12)」, 2014.
- \_\_\_\_\_,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 외성(外城) 시 · 발굴조사 간략보고서(2014-13)」, 2014.
- 전영준, 「고려 강도시대 사원의 기능과 역할」,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 \_\_\_\_\_, 「고려시대 異民族의 귀화 유형과 諸정책」, 『다문화콘텐츠연구』 13,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2.
- \_\_\_\_\_, 「고려후기 제주 移居 元이주민과 通婚」, 『다문화콘텐츠연구』 15,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 \_\_\_\_\_, 「조선 전기 別瓦窯의 설치와 財政 運營」, 『藏書閣』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_\_\_\_\_, 「고려 복속기 제주지역의 직촌 설치와 포구 운용」, 제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문, 2014.
-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서, 2008.

# Sambyeolcho's Entry into Hangpaduri and Its Strategic Use

Jeon, Young-joo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war against Mongol Invasion, Sambyeolcho fought against Mongolia in Ganghwado, Jindo and Jeju Islands. The camp of Sambyeolcho was collapsing due to the continued pressure and placation by Goryeo-Mongol Allied Forces. Selecting Jeju Island as the final defensive position was to get away from the attack by the Allied Forces.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regional administrative structure in Jeju at that time regarding Sambyeolcho's holding and defending were conducted mainly by the literary historical materials. Therefore, the discussions on Jeju Island during the integration of the island into the local government of Goryeo were divided into the period under the reign of King Taejo or Sukjong or Uijong in Goryeo. That is why there are problems appeared from the start of discussions in researching Jeju Island in the Goryeo Dynasty.

This study aimed to discuss the integration period of Jeju into the local government using the excavation results of Hangpaduri Fortress, which is actively underway, beyond the existing research methods. In particular, the collected inscribed tile included the name of the towns in Jeju contribute largely to identifying the administ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sland and the Goryeo

government. Therefore, identification of town names in Jeju in the Goryeo Dynasty can discover the reason for Sambyeolcho's entry into Hangpaduri. Furthermore, it may be helpful to explain the background for Sambyeolcho to strategically use the Hangpaduri Fortress.

[Key words]

Sambyeolcho, Hangpaduri Fortress, Inscribed Tile, Gonaechon (高内村),  
Tamna-gun (耽羅郡)

논문투고일: 2015년 2월 16일 / 논문수정일: 2015년 3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24일